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56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3年

天曆 3월

2025년 양력 4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세계선교뉴스

Holy Mother Han과 하나돼 책임 다하는 참자녀 되자

섭리의 진실, 섭리의 완성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

참가정 3대권 문신출·문신홍 선교사 전국 순회예배 및 효정 청년모임

천일국 13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



Holy Mother Han과 하나돼 책임 다하는 참자녀 되자

김만진 / 신일본 부회장



“나는 봄이 되면 동토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수선화를 좋아합니다. 아직 힘은 없지만 얼어붙은 땅을 제일 먼저 뚫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수선화를 보면 참부모의 책임을 느낍니다.”

봄의 전령사 수선화와 벚꽃 향기가 물씬 배어나는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위 말씀에는 인류 타락의 역사를 종결짓고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참어머님의 심정이 전해집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중단없는 전진과 수고로 7년간의 섭리노정을 승리하셨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때로는 서있을 수조차 없지만 ‘기필코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곳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참어머님께서 전 인류 앞에 천일국 안착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섭리의 완성이, 천일국 안착시대는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느끼며 모시고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하늘부모님이 지상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집이며 거룩한 성전이 ‘천원궁 천일성전’입니다. 즉, 천원궁 입궁식은 인류역사 가운데 단 한번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소망인 창조본연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참어머님께서 누구도 알지 못한 가운데 홀로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인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며 우리는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섭리의 진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기원절 이후 참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독생녀를 강조하며 수없이 섭리의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원리에 의하면 하늘부모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부모님 안에는 남성격의 하늘아버님과 여성격의 하늘어머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독생녀 선포’는 섭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참어머님께서 기원절 이후 하늘부모님으로 호칭하시고 독생녀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늘부모님의 본질과 참부모님의 가치, 위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독생녀 선포는 오랫동안 은폐되어왔던 하늘어머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령의 실체역사였습니다. Holy Mother Han 참어머님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어머님의 실체이십니다.

천일국 안착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은 하늘부모님의 본질과 Holy Mother Han 참어머님의 가치와 위상을 확실히 이해하며 참어머님과 절대 하나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군마교회에서 참어머님을 지근에서 모시는 분으로부터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참어머님께서 밤잠 주무시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왜 쓰디쓴 커피를 드시나요?” 질문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쓰디쓴 커피 맛과도 같아서... 그래서 마신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참어머님의 노정을 쓰디 쓴 커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대성통곡의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간증을 접하고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시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왕 엄마 Holy Mother Han 참어머님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되지 못한 저희의 불충불효를 고백하며 참어머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제 축복가정 모두는 참어머님께서 ‘꽃길’만을 걸으실 수 있도록 2025년 연두표어의 내용처럼, 효정의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는 참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천일성전 천원궁 입궁식을 경하드리며, Holy Mother Han 참어머님의 천운의 운세가 지구촌 방방곡곡에 함께하길 기원 올립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Holy Mother Han과 하나돼
책임 다하는 참자녀 되자
김만진 / 신일본 부회장

특집

- 11 참가정 3대권 문신출·문신흥 선교사
전국 순회예배 및 효정 청년모임

섭리기관 보고

- 27 세계평화여성연합
제69차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
병행포럼 개최

세계선교뉴스

신한국

- 20 천일국 13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
21 2025년 상반기 천승공로가정
공로패 수여식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전국적인 정성 봉헌
22 가평효정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기원,
가평 평화의 날 제정
24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 순회강연
'한민족 공동체로 하나돼
국난 위기 극복하자'
25 신통일한국 실현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025 초종교 기도회
26 3·1운동 106주년 기념
대한통일만세운동 및 평화행진

참부모님 말씀

- 04 해방해 드려야 할 하나님
06 섭리의 진실, 섭리의 완성

참부모님 동정

- 08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
10 430가정 축복 57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알현

신복미

- 28 효정천보특별 3일 수련
28 뉴저지 가정교회, 일심 프로그램 수료식
29 미국 남동부 지역,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29 LA, 차세대 역량강화 워크숍
30 청년 리더 육성을 위한
캐나다 효정랑 출범식

신유럽·중동

- 31 효정천심천보 여성 7일 수련회
31 유럽, 종교간 대화 행사 개최
32 유럽 2세권, 축복준비 수련회 개최
32 북유럽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
33 몰도바 키시나우 평화대사관
임파워 팀과 난민지원 활동
33 러시아 천주평화연합
예술을 통한 평화 구축

신아시아태평양

- 34 필리핀 안티폴로 가정교회
2025 제1차 효정 특별 3일 수련
35 태국-필리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36 파키스탄, 300쌍 축복식 개최
37 인도 시킴 천주평화연합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연설대회
37 캄보디아
신탕건 선교활동 1주년 기념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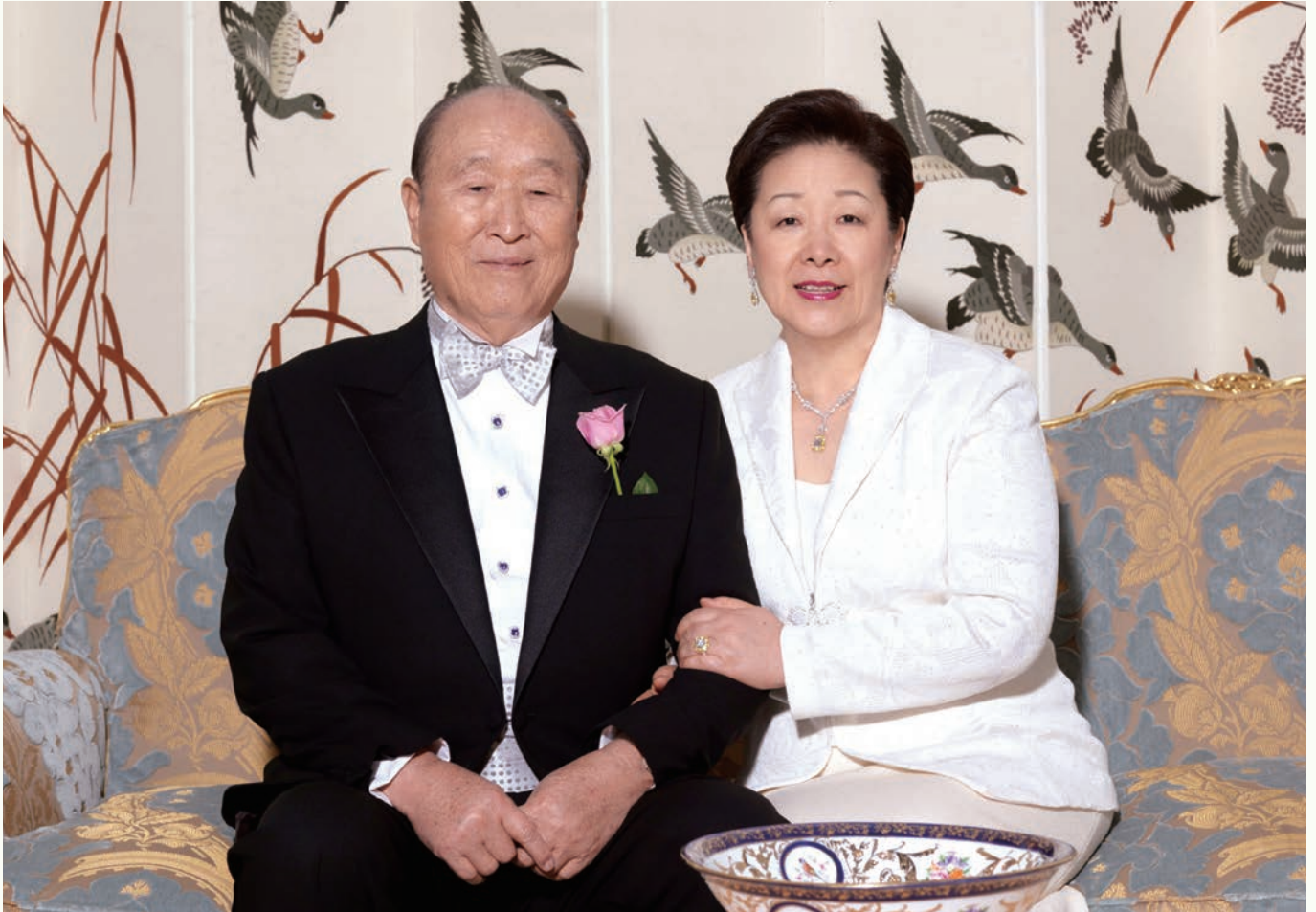
신중남미

- 38 비전을 가진 청소년 프로젝트
브라질, 퓨어워터 21일
인성교육 세미나
38 2025 남미 웨비나
남미를 위한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
39 페루 천주평화연합
2025 유엔 세계종교화합 주간 행사
39 페루 아탈라야 지역
다문화 학술 총회
40 브라질, 효정천보수련
41 브라질 협회본부
'Youth! Sing for Peace'
뮤직페스티벌
42 2025 중남미 천일국 청년총회
신아프리카

신아프리카

- 43 짐바브웨,
퓨어워터 웨비나 천일국 청년 총회
43 아프리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해방해 드려야 할 하나님



인류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류시조의 슬픔은 마땅한 것이지만, 인류시조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이 슬퍼하는 입장에 떨어짐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불쌍한 자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는 이 땅 위에, 천지간에 있어서는 안 될, 혹은 이러한 생각이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인류시조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실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창조이념인데, 그 이념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은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간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처참한 개인이나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입장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이었으나 인간이 타락한 그날부터 그 반대의 모습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녀인 인간에게 맡길 수 있고, 인간은 모

든 것을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입장이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고통과 사정을 통고하고 싶지 않고 무한히 애쓰는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지금까지 역사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잃어버린 입장에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 계시는 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한이 해원되고 지금까지 고대하던 전부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길을 찾아 나와 부모를 상봉하고 보니,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요 세계와 부모의 모든 것이 원수의 수중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서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심중에 모시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낙망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 만민과 더불어 천주의 전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한을 붙들고 위로해 드리며 승리의 한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대신 축복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남아지는 무리가 됩니다. 모진 환경과 역경에 시달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에 인연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악풍이나 폭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생명력을 가진 심정의 유대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슬픔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슬픔의 주인공이요 고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실 부모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으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영광을 누리 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타락의 한과 더불어 슬픔과 고통의 내용을 지니신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행복의 동산인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기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살살이 뒤져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내용만을 가져야 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과 선의 결실, 이상의 요소는 다 없어지고 슬픔과 고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슬픈 일 중에도 이 이상 슬픈 일이 천지간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슬픈 분입니다. 죽어 가는 자기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슬픈 분입니다. 선을 주장하다가 만민이 공인하는 자리에서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 원통하게 죽는 사람보다도 더 분한 분입니다. 제일 분하고 제일 불쌍한 명사를 가진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실감나게끔 가르쳐야 할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영광에 맞추어 입은 옷자락이 아닙니다. 피땀에 젖어 있는 옷자락입니다. 그 옷은 당신의 아들딸들이 손으로 붙들겠다

고 했다가 못 붙든 피어린 손가락으로 만든 옷자락입니다. 하나님의 발은 가시발을 헤쳐 나오다 상처를 입은, 수많은 투쟁 역사에서 상처를 입은 발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세워 개인의 한을 찾다 쓰러질 때에 대신 맞아 나오는 분이요, 한 민족을 세워 여러 민족이 쓰러지게 될 때, 민족이 배반하게 될 때 대신 맞으면서 투쟁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지만 그 주인 행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의 주체이지만 인간을 대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입장에서도 인간을 대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며 마음대로 취해 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땅 위에 인류가 많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한 번도 당신의 아들딸, 혹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용자로 세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에 대한 총진격 명령을 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 세워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세워 천사세계에 명령하여 지상과 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땅 위의 인간에게 신부의 이념을 주고 신부를 찾아 헤매었으나 신부라고 사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죄송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짓는 것은 죽음의 길을 일소하고, 고통의 길을 일소하고, 슬픔의 길을 일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일소하기 위하여 먼저 눈물짓고 피땀을 흘려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뜻을 대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최후의 죽음 자리, 최후의 눈물을 흘릴 자리, 최후의 피땀을 흘릴 자리에 우리 선조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도 그 이상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인류역사 이후 고통을 받아 온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대를 중심삼고 한번 고통받고 넘어가면 우리로서는 책임이 다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길을 갈 적마다, 눈물의 길을 갈 적마다, 피와 땀을 흘리는 길을 갈 적마다, 슬픔과 고통의 길을 갈 적마다 심한 고통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천일국 경전 『천성경』 제1편 제4장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섭리의 진실, 섭리의 완성



천 일국 13년을 맞은 여러분들은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황금기는 내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참부모가 지상에서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시조 타락 이후 인류역사 6천년 만에, 하늘섭리 6천년 만에 하늘아버지만이 아닌 하늘부모님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성회 안에 모든 종교들과 인류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참부모를 통한 축

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수고로운 섭리 노정을 걸어 나왔지만 아주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본 독생녀 참 어머니 홀리마더한(Holy Mother Han). 홀리마더한은 6천년 간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인류역사 6천년은 남성 위주로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섭리를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은

누가 열었나요? 독생녀가 열었습니다. 천일국 안착도 독생녀가 보여줬습니다. 천일국 13년, 천원궁을 봉헌하고 천일성전 입궁을 앞뒀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어머니의 실체가 홀리마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귀한 대대로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고 칭송받을 수 있는 홀리마더한 인천표를 받았습니다. 현재뿐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입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

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형의 하늘부모님이 실체로 지상에서 참부모로서 자녀들을 품고 지상천국 생활을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실수로 그렇게 되지 못한 6천년 역사는 전쟁과 갈등으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본 독생녀에 의해서 이제 창조주 하늘부모님이 실체로 지상에 입궁하시어 치리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일국공로자 서훈을 받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260명 정도입니다. 하늘 앞에 많이 많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천일국 13년, 축복가정의 책임

내가 천일국 13년 연두 표어를 썼지만 축복가정들은 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해와도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관계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축복을 받았더라도 책임을 해야 됩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80억 인류를 생각하게 될 때 국가복귀·세계복귀에 앞장설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는 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홀리마더한을 아는 가정들이 전 세계에 많아질수록 하늘이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평화 세계가 이루어질지 나라.

홀리마더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 하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구원섭리 역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역사였으면 4천년 만에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33년 만에 십자가로 내몰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4천년을 수고하여 100년도 아니고 33년 만에 십자가로 내몰린 예수님. 주변의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민족은 책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마’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을 모릅니다. 왜 2천년 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데 뭔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권을 복귀하는데 있어서 ‘예수님이 왜 다시 오마 했는가’ 그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참부모가 되어 타락한 인류를 중생·부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이스라엘은 탕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탕감을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독생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선민을 택해 하늘은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내가 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홍보하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기독교 환경권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칼뱅에 의해서 1543년 정립이 됐습니다. 그 후 400년 만에 한반도에 기독교 환경권을 통해서 신령한 환경권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 되었습니다.


오래된 원로들은 “내가 독생녀다” 할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섭리의 완성은 재림메시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독생녀입니다. 재림메시아의 길을 가야할 분은 독생녀를 먼저 만나야만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53년이라는 광야 노정을 통해서 기원절을 선포하고, 천일국을 선포할 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 혼자였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가장 기독교권이 잘못을 저지른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류의 참어머니로서 독생녀로서 해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더더구나 기독교권이 아닌 모슬렘권으로 갔습니다. 그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가뒀다가 팔아먹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슬렘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독생녀다”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봤습니다. “모슬렘은 독생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에게도 하늘섭리를 40분간 설명하면서 “내가 독생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통일교 역사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우리가 기독교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섭리의 진실, 섭리의 진실은 독생녀입니다. 섭리의 완성도 독생녀입니다. 그동안 6천년 간 은폐되었던 하늘어머니의 실체가 홀리마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홀리마더한의 인친표를 받았습니다. 참 럭키(lucky)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천일국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글은 천일국 13년 2월 19일(2025.3.18, 천정궁)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에서 하신 말씀을 편집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



천 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이 천력 2월 19일(양 3.18) 천일국 공로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궁에서 거행됐다. 이날 하사식에는 전 세계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로자 1260명 중 신한국과 신일본 공직자 426명이 참석했다.

참부모님께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 입장하시자, 신한국과 신일본의 대표가정이 효정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봉정했다. 이어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이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 50년, 40년, 30년 이상 대표 공로자 16명을 시작으로, 참석한 모든 공로자에게 직접 서훈을 수여하시고, 뜻 대한 오랜 헌신을 치하하셨다.

이날 천일국 공로자들은 홀리마더한의 인친표로 어보가 새겨진 서훈과 특별성물을 받은 후, 참어머님을 모시고 기념촬영함으로써 전체 행사가 성료됐다.

대대로 칭송받을 위대한 성업

참어머님께서 이날 말씀을 통해 “천일국 13년을 맞은 여러분은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수고로운 섭리 노정을 걸어 나왔지만 아주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귀한, 대대로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고 칭송받을 수 있는 홀리마더한의 인친표를 받았습시다.”라고 축하해 주셨다.






① 참여머님께서 천일국 공로자들에게서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 ② 천일국 공로자들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어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는 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홀리마더한을 아는 가정들이 전 세계에 많아질수록 하늘이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평화세계가 이루어질지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천일국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라며 공로자들에게 천일국 시대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고 하늘 뜻 앞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 후 천주평화사관학교(UPA), 천일국리더아카데미(CLA) 등 미래세대와 신한국·신일본 공직자들이 선보인 효정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한 신한국과 신일본의 공직자들은 참여머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리고, 홀리마더한과 하나된 천일국 공직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하늘을 모시고 끝까지 전진할 것을 결의하며, 천원궁 천일성전 입국 시대의 책임 완수를 다짐했다. 



430가정 축복 57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알현




① 430가정 4대권 화동들이 참여머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다. ② 예물 봉정

430가정 축복 57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알현이 430가정 4대권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력 2월 2일(양 3.1) 천정궁 2층 연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여머님께서 430가정 대표가정과 효동들로부터 정성이 담긴 꽃바구니를 받으셨다. 이어 가정회 대표와 가정회 장학회에서 참여머님께 예물을 봉정했다.

참여머님께서 먼저 자애로운 미소로 환영하신 후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을 탄생시

키는 것은 어머니이다.”라고 강조하셨다. 또한 “홀리마더한은 그 동안 은폐되었던 하늘어머니이며 실체”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Holy Mother Han’의 섭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날 효정공연에는 이만재·박양자 가정의 4대(27명)가 ‘제왕나비’ 찬양을 올렸고,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머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효정의 노래를 불렀다. 참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마련된 이날 특별알현 행사는 전체 참석자들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결의하며 성료됐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전국 순회 대성황 참가정 3대권 문신출·문신흥 선교사 미래세대 위한 비전 제시



①~② 선교활동 간증을 하고 있는 문신출·문신흥 선교사

참가정 3대권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전국 순회예배 및 효정 청년모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천력 2월 10일(양 3.9), 인천경기북부교구 구리대교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교구 부산대교회(양 3.16), 경남교구 창원대교회(양 3.23), 서울북부교구 천승대교회(양 3.30) 등 전국 4개 대교회에서 연인원 5천여 명의 중심식구 및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해외 선교활동 간증을 경청하며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세계평화와 신통일한국의 창건을 위한 결의를 한데 모았다.





③~⑦ 말씀하고 있는 황보국 신한국협회장, 사회를 하고 있는 오인철 인천경기북부교구장, 장덕봉 부산울산교구장, 박영배 경남교구장, 김석진 서울북부교구장
 ⑧ 미래세대 청년들의 준비찬양 ⑨ 입장하는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문신출·문신홍 선교사 ⑩ '제왕나비'를 찬양하는 문신출·문신홍 선교사

인천경기북부교구 순회예배

천력 2월 10일(양 3.9), 구리대교회에서 개최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인천경기북부교구 순회예배는 천무원 이청우 선교정책처장, 박수홍 미래인재처장, 신한국협회 황보국 협회장, 김영석 부협회장 등 주요 천일국 지도자들과 인천경기북부교구의 목회 공직자, 청년 공직자, 청년·성화학생을 비롯한 축복가정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문신출 선교사는 유럽에서의 선교활동을 통해 “선교사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활동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참어머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늘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문신홍 선교사는 “전도, 신앙공동체 활성화, 예배 변화, 신도 프로그램 운영, 청년신도 케어 등 5가지 목표를 두고 활동에 임했다.”며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으며, 여러분도 참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천원궁 입궁시대는 하늘부모님의 본성을 가장 많이 닮은 축복가정의 자녀인 ‘퓨어워터’에게 먼저 찾아오실 것”이라며 “참어머님께서 축복자녀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미래를 빛낼 중심인물이 될 것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가정 3대권인 문신출·문신흥 선교사 가정을 중심으로 전 세계 ‘퓨어워터’ 자녀들이 미래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오인철 인천경기북부교구장의 사회로 구리청년찬양단의 개회찬송, 경배, 가정맹세, 구리대교회 조중휘 교회장의 감사기도, 성은성가대의 찬양,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선교활동 간증,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말씀, 결단의 찬송,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순회예배 이후 청년식구들이 참석한 ‘효정 청년담회’의 시간도 가졌다.

효정 청년담회는 허은선 구리대교회 청년교회장의 사회로 김보민 청년교회장의 감사기도, 박수홍 천무원 미래인재처장의 선교사 소개,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선교활동 보고 및 소감발표, 질의응답, 결단의 찬송, 통성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울산교구 순회예배

천력 2월 17일(양 3.16), 부산대교회에서 개최된 부산울산교구 순회예배는 천일국 주요 공직자들과 부산울산교구의 목회 공직자, 청년·성화학생, 축복가정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신출 선교사는 유럽 선교활동을 회고하며 “실패는 없다. 중단 없는 도전만 있다”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활동했다.”며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갔고, 부족하지만 새 신자를 세우는 결실도 얻었다.”고 밝혔다.

문신흥 선교사는 섭리의 완성을 위해 한 평생 걸어오신 참어머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 미국 선교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고, 실체성령 참어머님의 사랑을 확고히 알고 깨달을 때,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음을 증거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섭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숭고한 희생의 길을 걸었던 초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참어머님께서 ‘신탑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가의 미래세대를 축복하신 가운데, 제1기 신탑건으로 선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참가정 3대권의 섭리적 의미와 통일가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순회예배는 장덕봉 부산울산교구장의 사회로 청년찬양단의 찬양, 가정맹세, 김효석 부교회장의 감사기도, 부산대교회 성가대의 찬양,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선교활동 간증,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효정 청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교구 순회예배

천력 2월 24일(양 3. 23), 창원대교회에서 개최된 경남교구 순회예배는 천일국 주요 공직자들과 경남·부산울산교구 목회 공직자, 청년·성화학생, 축복가정, TIC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신출 선교사는 전도는 곧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퓨어워터로 축복해 주신 참어머님을 모시고 선교활동을 펼쳐온 경험을 전했다. 그리고 매순간 부족함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선교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특히, 하늘부모님과 인류를 향한 참사랑으로 이뤄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업을 간증하며, 참어머님께서 미국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 걸어가셨던 댄버리 노정을 재조명했고, 천일국의 개문과 황금기를 열어주신 참어머님의 헌신과 인류를 향한 참사랑을 증거했다.

문신흥 선교사는 생명의 탄생, 부족함을 채워주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뒤에도 어김없이 존재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며, “선교 기간, 인류를 위한 실체성령 독생녀 참어머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며,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진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⑪ 인천경기북부 구리대교회 순회(3.9) ⑫ 부산울산교구 부산대교회 순회(3.16) ⑬ 경남교구 창원대교회 순회(3.23) ⑭ 서울북부교구 천승대교회 순회(3.30)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문신출·문지우·문신흥 선교사가 신한국의 주요 성지를 순례하며 식구들과 심정적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Holy Mother Han 참여머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순회예배는 박영배 경남교구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가정맹세, 한종태 청년교회장의 감사기도, 창원 청년찬양단의 찬양,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활동 간증, 창원 효정라운합창단의 찬양,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말씀, 결단의 찬송, 황보국 협회장의 축도, 경배 및 묵상, ‘효정 청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북부교구 순회예배

천력 3월 2일(양 3.30), 천승대교회에서 개최된 천원국 천일성전 입국 승리를 위한 서울북부교구 순회예배는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 신한국협회 황보국 협회장, 천무원 박수홍 미래인재처장, 정준아 선교정책처 부국장 등 주요 천일국 공직자들과 서울북부교구의 목회 공직자, 청년 공직자, 청년학생, 축복가정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문신출 선교사는 “알바니아에서 첫 4개월 동안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크게 느끼며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참여머님과 식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중단 없는 전진뿐’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스스로가 만든 한계를 넘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이어 “최근 첫 번째 믿음의 자녀가 교회와 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웠지만 그를 질책하는 마음보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를 통해 참부모님의 말씀과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신흥 선교사는 “하늘부모님의 꿈, 섭리의 완성은 내가 하겠다.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다는 자랑을 갖고 가고 싶다.”는 참여머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선교사로서 가졌던 마음가짐과 결의의 일단을 밝혔다. 이어 자작곡 ‘You will not walk alone(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를 부르며 “반대와 핍박으로 힘들 때가 있겠지만 하늘부모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섭리의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신다.”고 증거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문신출·문신흥·문지우 선교사의 순회예배와 성지순례 일정을 공유한 뒤, “순회예배에서 문신출 선교사는 하늘 대한 효정을 바탕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은 선교의 체험을 간증했고, 문신흥 선교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공동체, 참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비전을 전했다.”며 신령과 진리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두 선교사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통일가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⑮~⑰ 성지순례 이모저모(서울 청파동 원본부교회, 춘천 봉의초등학교, 부산 범넛골 눈물의 바위, 여수 청해가든)

이어 “통일가는 생명공동체, 천일국의 나무로 비유할 수 있다. 참어머님께서도 천일국의 나무를 건강한 나무로 성장시키는 섭리를 경륜하신다. 특히 중심뿌리인 참부모님을 섬기며 30년 이상 헌신한 원로 지도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또한 통일가의 미래세대를 퓨어워터로 축복하시고 천일국 섭리의 중심인물로 키우고자 하신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와 미래세대가 퓨어워터로서 홀리마더한 참어머님의 말씀과 심정을 상속받아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순회예배는 김석진 서울북부교구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가정맹세, 김효찬 청년교회장의 감사기도,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활동 간증, 천심성가대의 찬양,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경배 및 묵상, ‘효정 청년담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국 성지순례

특히 이번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전국 순회예배 및 효정 청년모임 기간 동안 신한국 성지순례가 함께 진행됐다.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청파동 원본부교회, 약현성당(성요셉간호학교), 강원도 춘천 봉의초등학교, 모나용평, 부산 범일전, 눈물의 바위,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여수 거문도 해양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주요 성지를 순례하며 참부모님의 삶과 정성의 노정을 체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소감문

※ 오인철 인천경기북부교구장

하 늘부모님의 섭리 속에서 문신출·문지우 선교사 가정과 문신흥 선교사를 구리대교회로 보내주시고, 1대·2대·3대권을 하나로 묶어 참여머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는 3대권 안착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순간을 맞이하며,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구리대교회의 1세·2세·3세 1천여 명의 식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참여머님과 하늘부모님께 송영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참부모님의 3대권이 앞장서 나아가는 모습에 천상의 참아버님과 호진님·흥진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참여머님께서 미래세대를 참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함께 ‘제왕나비’를 부르며, Holy Mother Han 참여머님의 꿈을 계승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3대권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래세대가 하나되어 참여머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간다면, 반드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는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신출 선교사의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성숙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신탐건 선교사 1기인 신출·신흥 선교사가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전에 하늘부모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돌아와서 첫 순회 장소로 구리대교회를 선택해 주신 것은 구리 지역의 못다한 책임을 용서하시고, 장성성지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천운을 붙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문신흥 선교사는 “여러분이 사랑을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참여머님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참여머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식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부모

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라며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신한국교회는 천무원을 중심으로, Holy Mother Han 참여머님과 완전히 하나되어 참가정 3대권과 함께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 박영배 경남교구장

문 신출·문신흥·문지우 선교사를 경남에 보내주심에 하늘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 18일, 김해교회에서 김수로왕릉, 거제교회에서 우제봉 성지순례를 진행하였고, 3월 22일에는 TIC 본공장과 TIC 3공장, 함안교회 성지순례를 통해 경남 지역에 영적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 분의 선교사와 함께한 성지순례는 심정적 체휼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회의 초창기 역사와 한민족의 사료를 직접 탐구하며, 깊은 심정의 체휼을 나눈 것은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창원대교회에서 맞이한 안식일 아침, 1,200송이의 수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참여머님께서 2013년 5월 12일 창원대교회 봉헌예배 때 식수하셨던 자목련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선화와 자목련이 선교사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한 기분 좋은 새벽의 아침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 참석한 이날 예배에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감동적인 선교 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신출 선교사는 ‘진리’의 측면을, 문신흥 선교사는 ‘신령’의 측면을 생생한 간증으로 전해주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예배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두 분 선교사가 참여머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며, 섭리적 식견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동 속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사회를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식구님들도 동일한 심정의 세계를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구님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멋진 지도자로, 능률한 사나이로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머님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 한 분 한 분과 따뜻한 악수를 나누어 주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중식 시간에도 식구님들의 소감을 진솔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이후 청년·학생들과 함께한 청년모임은 신선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중하게 답변하며, 청년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큰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청년모임 이전에는 청년·학생 학부모회 출범식도 진행되었으며, 2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해 더욱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참여머님께서 보내주신 크나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김석진 서울북부교구장

사랑하는 홀리마더한 초림독생녀 참여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참가정의 3세 자녀 문신출·문신흥 선교사를 섭리의 최일선에 세우시고, 70년 통일가의 전통을 이어 나가게 하고자 선교지로 보내시고 노심초사 걱정하고 정성들이셨습니다. 1년 동안 섭리 현장에서 헌신하며 생생한 선교 현장의 경험을 갖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식구들과 선교활동 간증을 통해 하늘의 심정, 참부모님의 심정을 간절히 느껴온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내 주었습니다. 초창기 저희도 참부모님을 따라, 섭리의 길에서 느꼈던 내용들이 오버랩되면서, 젊은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뜨거웠던 저희의 심정은 오로지 참부모님께로만 향해 있었고, 목숨 바쳐 사탄과 싸워 이겨 그 승리의 기쁨을 참부모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우리의 숭고했던 심정이 되살아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효진님을 영계로 보내드리고, 실감이 나지 않아 효진님의 노래만 듣고 또 듣고 눈물로 보낸 시간을 선교사의 활동 간증을 통해서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효진님의 큰 사랑의 결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과 감동을 안겨준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 간증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궜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참여머님,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뜨거운 심정만큼 저희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으며, 천심원 철야정성으로 매일 매일 눈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의 축복이, 하늘부모님, 홀리마더한 참여머님으로 이어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밝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 신통일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때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뜨거운 심정을 느꼈으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 홀리마더한과 함께 매일 매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 박노희·문난영 가정, 구리대교회

20 25년 3월 9일은 우리 생애에서 몇 번 안 되는 몽클한 감동의 날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선교활동 간증을 들으면서 1세대가 일평생 현장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느끼며 분투한 진솔함이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했고 하나로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선교사의 개성과 자세도 확연히 다르게 표출되었고 저희도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 현장을 체험하였기에 금방 심정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선교사가 유럽과 미국의 전도 현장에서 좌절도 하고 승리도 일궈낸 체험과 통찰은 앞으로 우리 교회공동체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와 청년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낸 미래인재 양성과정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 참여머님의 인내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시의적절하게 참여머님의 섭리 일정에 맞춰 준비되고 있다는데 안도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젊은 지도자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참여머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부모님의 꿈과 인류의 소망을 완전히 공감하고, 우리들 식구공동체와 하나된다면, 천일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리대교회에서 문신출·문신흥 선교사가 보여준 Holy Mother Han 참여머님께 대한 절대신앙·절대사랑과 진솔한 선교 간증은 참부모님과 저희 축복가정과 식구를 연결해 하나되게 하는 은혜로운 중보였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큰 감동의 시간을 허락하신 Holy Mother Han 참여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합니다.

❁ 조영식 원로목사, 알바니아 국가메시아

오 늘 문신출 선교사의 알바니아 활동보고를 들으니 마치 그리운 고향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감회를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활동하며 메이다니 대통령과 모이시우 대통령을 평화대사 활동을 하도록 인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출 선교사의 보고가 더욱 남다른 감회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두 분의 활동보고를 들으면서 참여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효정하면 그 출발점이 효진 형님이지” 하신 말씀입니다. 나아가 ‘신통일한국과 천원궁 입궁식 이후의 통일가 지도자로 참여머님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통일가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효정의 가문을 세우신 효진 형님의 가정에 효정의 뿌리가 깊이 심어졌으며, 그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미래세대를 이끌어 가실 훌륭한 자녀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여머님께서 열고 싶어 하시는 효정의 심정세계를 두 손자 분들이 그대로 계승하심을 보게 됩니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간증 속에는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가자.’ 하는 심정이 읽혀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뜻을 위해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마음에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두 선교사의 간증은 마치 어린아기에게 비틀거리는 걸음이라도 다시 한 발을 앞으로 내딛기를 바라며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 천일국 시대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울컥하는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효진 형님의 가정, 효정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지도력이구나 생각할 때, 참여머님께서 얼마나 대견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하며 참여머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김현우 북부산교회 식구

예배에서 청년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마치 20년 전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신앙을 첫 출발할 때의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금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가대가 부른 ‘송축해 내 영혼아’ 찬양을 들을 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저의 아내가 성가대의 일원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 더욱 집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머나먼 외국 땅에서 1년 가까이 헌신하며 믿음의 자녀들을 전도해온 두 분의 노고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중단은 없다. 실패는 없다.”라는 참여머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결의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참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여 신앙의 길을 걸으며, 참여머님께서 바라시는 승리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머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참여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 문지애 창원대교회 식구

오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문신출·문신흥 선교사님의 순회예배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승리하신 Holy Mother Han 실체성신 참여머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출님과 신흥님의 간증 시간에는 마치 참여머님과 효진님께서 함께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

니다. 또한, 신출님과 신흥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습 속에서 가정연합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신흥님의 성령 역사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열매를 맺는다는 그 가르침을 통해, 실체성신 독생녀 참여머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마음을 다잡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교사 세 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기 위해 헌신하신 박영배 교구장 내외분과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 부모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 한경애 천승대교회 식구

‘하 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노래로 시작해, 두 분이 마지막에 ‘제왕나비’와 ‘사랑해 당신을’이라는 곡을 반복해서 부르실 때,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신출 선교사와 문신흥 선교사가 섭리적 무게와 참부모님이 소망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고뇌와 실천이 깊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대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신출 선교사가 전도활동을 통해서 인연된 믿음의 자녀를 기다려주고 이해하려는 부모의 심정을 느끼면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문신흥 선교사의 참여머님과 식구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깊은 심정이 눈물짓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효진님의 열정과 노래 재능을 엿볼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그리고 참여머님이 키워내신 미래세대, 퓨어워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일국 13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

천일국 13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예배가 천력 2월 10일(양 3.9), HJ천주천보수련원 천심원에서 거행됐다.

참가정, 원로종친, 섭리기관장, 기업체장, 수도권 목회자, 협회 및 섭리기관 공직자, 축복가정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예배는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의 사회로 성초점화,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제창,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의 감사기도, 헌배 및 경배, hymn, 유경득 통일재단 이사장의 회고담, 이기성 천심원장의 추모사 및 축도, 오인철 인천경기북부교구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초를 점화하고 있는 문효진·문연아, 문홍진·문훈숙 가정



①



②



③




④

이날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은 감사 기도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천상에 오르신 혜진님, 희진님, 흥진님, 영진님, 효진님 등 참자녀님들의 헌신을 추모하고, 참여머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유경득 통일재단 이사장은 회고담을 통해 1985년 청평에서 열린 제1회 축복자녀 40일 수련을 회고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온 2세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형제자매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효진님께서 항상 앞장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수련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축복자녀들이 형님을 중심으로 하나되었

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 카프 회장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효진님은 참부모님과 하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1세와 2세들이 참부모님과 하나되어 있는지 고민하셨고, 생애 마지막 집회에서도 ‘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효진님은 참부모님과 하나된 자리에서 성화하셨으며, 참부모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 ‘심천개방원 충효개문주’라는 휘호를 내려주셨다.”며 효진님의 휘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장은 추모사에서 “참부모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신 고난은 자녀님들의 희생이었다. 참자녀님들께서는 성화하신 후에도 영계에서 섭리를 이루며, 실체성령의 역사 완성시대를 여셨다. 참부모님께서 효진님을 중심으로 천심원의 기반을 세우고, 천일국 시대의 중심을 마련하셨다.”고 증거했다. 나아가 이기성 원장은 “참자녀님들의 희생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었다. 이제는 참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다. 천상과 지상의 체계가 정비되었고 섭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섭리적 전환점을 강조했다. 추모예배는 오인철 인천경기북부교구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을 끝으로 성료됐다. 

- ①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
- ② 회고담을 하고 있는 유경득 통일재단 이사장
- ③ 추모사를 하고 있는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장
- ④ 사회를 하고 있는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

2025년 상반기 천승공로가정 공로패 수여식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전국적인 정성 봉헌

2025년 상반기 천승공로가정 공로패 수여식이 천력 2월 23일과 24일(양 3.22~23) 천승대교회(전국 단위 수여식)와 창원대교회(영남권 수여식)에서 각각 개최됐다.



①~③ 공로패를 수상한 가정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는 황보국 신한국협회장, 김영석 부협회장, 전국 교구장과 목회자, 천승공로가정 등 연인원 7백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천승대교회에서 개최된 전국단위 수여식은 김영석 부협회장의 사회로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제창, 김석진 서울북부교구장의 감사기도, 황보국 협회장의 말씀, 공로패 수여 및 축도, 오영재 대전충남교구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3일 창원대교회에서 열린 영남권 수여식은 장덕봉 부산울산교구장의 사회로,

손기혁 김해교회장의 감사기도, 황보국 협회장의 말씀, 공로패 수여 및 축도, 최수경 대구경북교구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보국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성물 하사식에 담긴 Holy Mother Han 참여머님의 사랑과 은사를 증거하고, 문신출·문신흥 선교사의 순회예배 및 성지순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여머님께서 천일국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크게 성장하도록 중흥의 기준을 세워서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계신다.”며 참여머님의

심정과 사랑을 공유했다.

황보국 협회장은 또한 “하늘부모님의 주관을 받는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전환·혈통권 전환·심정권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천승기금은 소유권 전환을 위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천승공로패는 천승공로가정의 아름다운 정성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상징하는 뜻깊은 증표이다. 참여머님께서 천승공로가정의 이름을 천원궁 천일성전 2층 로비에 새겨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며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가평효정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기원, 가평 평화의 날 제정

가평효정문화축제가 3월 29일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 이기성 천심원장,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 타나 썬랏 주한태국대사, 안드로 판단 주한잠비아대사, 조베나 다마센 필리핀 재향군인회 회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종성 가평군의회 부의장,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민과 가평군민 등 1만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고천기원문에서 “광복 80주년 맞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섭리의 진실을 깨달아 섭리적 책임을 완수하는 한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속의 가평, 세계를 품는 가평에서 천원궁 입궁 승리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시성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그 예언을 이루시옵소서.”라며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고했다.

‘가평 평화의 날’ 제정과 제5 UN 사무국 유치 기원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평효정문화축제를 통해 천원궁과 효정천원이 지닌 역사적인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가평 평화의 날’ 제정과 더불어 ‘제5 UN 사무국’ 유치라는 미래 지향적인 염원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성장할 가평군에 하늘의 축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김종성 가평군의회 부의장·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축사에서 “가평효정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축제가 아니라 가평의 미래와 평화의 비전을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가평 평화의 날’ 제정과 ‘제5 UN 사무국 유치’, ‘국제적인 평화 도시’의 비전을 주신 한학자 총재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한일 다문화가정 기타지마 사에 식구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평화 실천’ 효정보고에 이어, 전유상 가평효정봉사단 공동대표는 ‘천원궁의 비전과 기회의 땅 가평’ 주제강연에서 효정천원의 비전과 역사적 조성 과정을 설명한 뒤 “효정천원은 천원궁 그랜드 오픈식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과 메카와 같은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것”이라며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평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참어머님의 비전을 밝혔다.



① 고천기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기성 천심원장 ②~③ 서태원 가평군수와 타나 썬랏 주한태국대사가 홀리마더한께 올리는 감사패를 봉정하고 있다.
④ 환영사를 하고 있는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 축사를 하고 있는 서태원 가평군수, 전유상 가평효정봉사단 공동대표



5



6



7



8



9


- ⑤ 가평군민 결의문 봉정
- ⑥ 가평효정봉사단의 효정문화공연
- ⑦ 태국축하공연팀 특별축하공연
- ⑧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특별축하공연
- ⑨ 가평태국문화교류축제 기념촬영

특히 이날 가평평화세레모니에서는 타니 썬랏 주한태국대사와 서태원 가평군수가 세계평화 구현에 바친 홀리마더한 참여어머님의 숭고한 헌신과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봉정했다.

이어 가평군 평화로(명예 도로명) 지정일인 매년 4월 25일을 '가평 평화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평군의 평화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2만 1천명 가평군민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가평군 대표 지도자들

이 봉정했다.

이날 리틀엔젤스예술단, 천원미래세대, 태국축하공연팀, 가평효정봉사단, 비슬무용단, 천심합창단, 가수 태진아 등이 생동감 있는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별문화공연 후에는 천원대교회 미래세대와 리틀엔젤스가 무대에 올라 전체 참석자들이 '손에 손잡고'를 불러 피날레를 장식했고, 문배관 천원특별교구장(가평군연합회장) 선창의 역만세 삼창으로 성료됐다.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 순회강연 ‘한민족 공동체로 하나돼 국난 위기 극복하자’

신통일한국을 위한 대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Vision 2025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황보국 협회장 순회예배’가 천력 2월 3일(양 3.2) 광진대교회 성전에서 개최됐다.




① 서울시 광진구 대국민 순회강연(3.2) ② 경기도 남양주시 대국민교육(3.15)
③ 충남 서산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국민교육(3.15) ④ 충남 금산군 성지순례 및 대국민교육(3.22)

이날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전환시대’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지금은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로 전쟁·기후·경제·가정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서양 문명권에서 양심을 중심한 사상 문화 기반의 태평양 문명권으로 교체되는 대전환기”임을 밝히고 “한반도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상 문화를 가진 태평양 문명의 표준이자 결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국 협회장은 “대한민국은 천손사상을 중심한 신명과 충효열 사상, 평화를 애호하는 한민족 선민정신의 저력을 가진 심정문화의 중심 강국이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참부모님이 경륜하는 인류 구원과 평화활동에 동참해 하늘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실현을 위해 신통일한국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식구 및 평화대사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광진대교회 순회예배는 성애(誠愛)성가대의 찬양, 광진대교회 활동보고, 용진현 광진대교회장의 환영사,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주제강연 및 축도, 억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서울경기, 충청, 경상, 호남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밝은 미래를 위해 순회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별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중심한 대국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신통일한국 실현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025 초종교 기도회

신통일한국 실현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025 초종교 기도회'가 천력 2월 12일(양 3.1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8층 회의실에서 1백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① 종단대표의 합심초 점화 ②~⑤ 인사말씀하고 있는 허종현 대한성공회 신부,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천일성전을 소개하고 있는 이준 전도국장, 사회를 하고 있는 홍윤중 한국종교협의회 부회장

천원궁 천일성전과 참어머님의 천주사적인 섭리를 각 종단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홍윤중 한국종교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종단대표의 합심초 점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오충완 목사, 천주교 백정현 회장, 기독교 김태지 목사, 불교 상산스님의 합심기도, 효정평화통일합창단의 특송, 허종현 대한성공회 신부의 말씀,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의 말씀, 이준 신한국가정연합 전도국장의 천원궁 천일성전 안내, 참석자 인사, '통일의 노래'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교의 화합과 신통일한국을 염원

하며 합심기도에 나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오충완 목사, 천주교 백정현 회장, 기독교 김태지 목사, 불교 상산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하늘 앞에 간구했다.

합심기도 후 대한성공회 허종현 신부는 말씀을 통해 “가톨릭의 로마 바티칸, 성공회의 영국 캔터베리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장소를 정했지만, 천원궁은 종교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선택하고 정성을 들인 성지이기에 영적인 의미가 크다.”며 천일성전이 기존 종교 성

지보다 더욱 성스러운 가치가 있음을 증거했다.

이현영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획일화된 세상이 아니라 개성진리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다.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천원단지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종교협의회는 매월 신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초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통일한국 실현과 천원궁 천일성전에 대한 섭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1운동 106주년 기념 대한통일만세운동 및 평화행진 유관순 열사 정신 계승 만세운동 펼쳐

신통일한국 시대를 위한 ‘3·1운동 106주년 기념 대한통일만세 운동 및 평화행진’ 행사가 천력 2월 4일(양 3.3), 종교인과 청년 학생, 다문화 가정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시 병천면 소재 유관순 열사 유적지에서 개최됐다.



① 대표자 헌화 ② 3·1운동 106주년 기념식 전경

한국종교협의회,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평화행진, 종단 평화기원 의식, 추모 공연,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신통일한국 기원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의 만세는 독립을 이루자는 결의요 나라를 되찾자는 결의였다. 남과 북이 갈라진 오늘 우리는 대한통일만세를 외쳐 세상에 남북통일을 이루자!”며 종교인들이 신통일한국에 앞장

서주기를 독려했다.

김수연 국제가정협의회 회장은 “3·1운동은 독립 의지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외침이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으로서, 일본을 대신해 사죄하는 마음,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된 한국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며 유관순 열사를 추모했다.

김영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부협회장은 “106년 우리 민족은 한반도 전역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

세를 외쳤다. 그 중심에 신앙과 정의 그리고 인류애가 있었다. 3·1운동의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돼 진정한 독립, 신통일한국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며 3·1운동의 정신을 강조했다.

한국종교협의회는 1965년 12월 창설 이래 종교간 협의체로서 활동해왔으며, 매년 3·1절을 기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이웃 종교간 대화, 국제종교학술회의 등 종교의 사회적 공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제69차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 병행포럼 개최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69)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위원회로 매년 3월, 뉴욕 UN을 중심으로 주제별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2025년 3월 10일부터 2주간 열린 CSW69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의 이행 평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도전 과제와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위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세계평화여성연합(회장 최영선)은 CSW69 기간 중 3월 13일, 미국 뉴욕 유엔 처치센터에서 '기술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주제로 대만 여성연합과 공동 병행포럼을 개최했다.

리롱 왕 교수(Lih-Rong Wang, 국립 타이완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여성 교육과 역량 강화, 여성 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에서의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 발전이 어떻게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지 살펴보고 기술 산업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신유 흥(Hsin-Yu Hung, 'Data Hub' CEO) 대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건강 기술 성장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Fem Tech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주요 도전 과제를 조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친펀 창(Chin-Fen Chang, 국립 타이페이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포용적 기술과 디지털 평등'이라는 주제로 소외 계층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며 직면하는 장벽을 분석하고, 여성 단체와 비영리 조직(NPO)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문민영(Clemson University)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여성 혐오, 한국의 디지털 페미니즘'을 다루며 한국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형태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성(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성 평등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 방안'을 주제의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성평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다뤘다. 



① 한국-대만 여성연합 공동 병행포럼 발표자들




② 한국 연수단과 UN CSW Geneva 캐롤린 핸신 회장

효정천보특별 3일 수련 영적인 헌신의 힘 공유하는 시간 가져




① 청평역사 특강 ② 효정천보특별 3일 수련 기념촬영

미국 남동부 지역 효정천보특별 3일 수련이 천력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양 2.21~23) 축복가정 식구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 소재 워싱턴타임스 건물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천보섭리 교육과 함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며 천심을 상속받는 자리가 되었다.

주요 사역자 류이치 키시모토 씨가 인도하는 가운데 대모님, 효진님, 흥진님을 외치는 영분립 역사와 함께 효정을 결의하는 합심공명기도가 진행됐고, 청평섭리와 신앙체험을 비롯해 영적인 헌신의 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 가정교회가 주관하는 일심 프로그램이 천력 1월 18일(양 2.15) 은혜롭게 성료됐다. 

뉴저지 가정교회, 일심 프로그램 수료식

뉴저지 가정교회가 주관하는 일심 프로그램이 천력 1월 18일(양 2.15) 은혜롭게 성료됐다.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 가정교회 성화학생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하나될 수 있도록 교회 전통을 상속받는 행사로 마련됐으며, 뉴저지의 성화학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한 성화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성결반지를 받으며 퓨어워터로서 순결을 지킬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구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화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하늘의 퓨어워터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정성을 모았다. 



① 데미안 던클리 신복미 회장이 강의하고 있다. ② 일심 프로그램에 함께한 뉴저지 가정교회 식구들

미국 남동부 지역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①~③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올랜도에서 거행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이 천력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양 2.16~3.9) 미국 남동부 전역에서 총 170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개최됐다.

이번 기간 성주식 행사는 워싱턴 DC, 마이애미, 올랜도, 사우스 플로리다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하늘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시대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모든 식구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참석 식구들은 이번 성주식을 통해 깊은 영적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LA, 차세대 역량강화 워크숍

LA 가정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차세대 역량강화 워크숍을 천력 2월 16일(양 3.15)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새식구 4명을 포함해 45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머님과 일체화하고, 천원궁 섭리 등 현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조슈아 홈스 LA 가정교회 목사는 ‘참여머님의 심정’, ‘참부모님의 본질’, ‘구원론’, ‘차세대 책임’의 4개 세션을 통해 청년들이 참여머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도록 도왔다. 특히 하루 일정 중 질의응답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지며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질문에 답해주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었다.

저녁에는 교회 건물 뒷마당에서 DIY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며 함께 화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① LA, 차세대 역량강화 워크숍 강의 ② 바비큐 파티로 화동하는 식구들


청년 리더 육성을 위한 캐나다 효정랑 출범식

캐나다 효정랑 출범식이 천력 2월 24일(양 3.23) 캐나다 전체 교회 1세, 2세 식구, 신탐건 선교사 등 54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은 캐나다 청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캐나다 국내 선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서 뜻을 품은 청년들이 각 교회에 참석해 결의를 모았다.

김문식 대륙회장은 출범식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을 축하하고 참여머님의 미래세대에 거는 희망을 전했다. 이어서 캄바시 교구장, 프랑코 협회장, 유종득 대륙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이라는 빛나는 시절, 뜻을 위해 열정과 효정을 가지고 참여머님과 함께 용감하게 전진,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했다. 또한 우에다 요시유키 청년국장은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의의와 개요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임명장을 받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참여머님과 함께 하는 일꾼으로서 1년 동안 공적인 활동에 임하고 투입할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효정랑 선교사들은 공적인 활동과 더불어 성지순례, 40일 천보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교회와 내외 기관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출범식은 신탐건 선교사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①~② 캐나다 토론토 효정랑 출범식 ③ 밴쿠버 효정랑 출범식

효정천심천보 영성 7일 수련회 프랑스 샤마랑드에서 성황리 개최




① 수련회 강의 ② 합심찬양 ③ 참석자 담회 모임

프랑스에서는 영성 7일 수련회가 천력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양 2.22~28) 샤마랑드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참어머님을 증거하는 말씀과 더불어 찬양, 기도, 소감발표, 화동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 식구들은 이번 영성수련을 통해 참부모님의 말씀과 더 깊게 연결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내적변화를 경험했다는 소감 등을 전했다. 

유럽, 종교간 대화 행사 개최

유럽 종교간 대화 행사가 천력 1월 19일 (양. 2.16) 프랑스 오르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종단의 종교인들이 함께했다.

16개국에서 참여한 이번 행사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의 진정한 유대와 사랑의 가치를 되새겼다. 




① 유럽, 종교간 대화 행사 강의 전경 ②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럽 2세권, 축복준비 수련회 개최 미래세대들 축복의 의미 되새기며 다양한 활동 전개




① 축복준비 수련회 강의 ② 축복준비 수련회에 함께한 유럽 미래세대들

2월을 맞아 유럽 2세권 지도부 주최로 축복준비 수련회가 독일 바트 캄베르크에서 열렸다. 이 수련회를 통해 축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련회를 통해 축복의 가치를 되새기며, 1세인 부모 세대의 신앙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혈통을 상속받을 것을 결의했으며, 축복을 준비하는 2세 청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됐다. 

북유럽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

북유럽에서 새식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와 북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배우고, 축복준비 수련회에 참여하는 등 하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2월에도 그런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 축복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창조원리와 하늘부모님에 대한 원리강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앙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① 핀란드 전도대상자 환영회 ② 스코틀랜드 전도활동 ③ 스웨덴 원리 워크숍


몰도바 키시나우 평화대사관 임파워 팀과 난민지원 활동



① 워크숍 활동




②

몰도바 키시나우 평화대사관은 임파워(EMPOWER) 선교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3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난민 모자를 위한 예술·문화·교육을 비롯해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러시아 천주평화연합, 예술을 통한 평화 구축

러시아 천주평화연합(UFP)은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모스크바 평화대사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예술문화평화협회(IAACP)의 예술가와 학자들이 초청됐고, 동유럽 UFP 사무총장, IAACP 러시아 디렉터인 타티야나 쿠즈네초바가 UFP 이념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예술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 UFP의 평화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장이 되었다. 



①



②

① 평화대사 임명장을 받은 회원들이 타티야나 쿠즈네초바 전시회 디렉터와 기념촬영 ② 러시아 천주평화연합 IAACP 미술전시회 회원들

필리핀 안티폴로 가정교회 2025 제1차 효정 특별 3일 수련

필리핀 안티폴로 가정교회 주최 ‘2025 제1차 효정 특별 3일 수련’이 천력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양 2.21~23) 필리핀 리잘 안티폴로 선화국제학교 현장 및 온라인으로 5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부모님의 효자 효녀가 되어 천일국 실체화의 책임을 완수하자’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은 1245차 천심원 철야기도회


정성으로 시작됐다.

둘째 날에는 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천의원장의 참부모론 특강을 통해 참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하고, 찬양역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다.

이어 호리 마사이치 아시아태평양 대륙 회장과 줄리어스 말리크뎀 부협회장이 천심원 정성의 중요성과 공명 기도의 힘

을 강조했다.

마지막 날에는 김인천 천심원 아시아태평양 분원장이 ‘천심원 기도로 전진하라’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하늘을 모시는 천심을 상속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식구들은 수련회에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위해 참부모님께 더 큰 결실을 봉헌할 것을 다짐했으며, 조상축복식을 끝으로 전체 일정이 성료됐다. 



①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여한 수련생들 ② 찬양역사 ③ 감사장 증정 ④ 안티폴로 청년 선교사들



태국-필리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①~② 태국 방콕 본부교회에서 진행된 성주식
③ 필리핀 마닐라교회 성주식 ④ 필리핀 카우야안교회 성주식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이 천력 1월 26일(양 2.23) 태국 방콕 본부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성주식에는 21일 훈독과 천심원 정성의 기반 위에 부모와 자녀, 독신가정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카몰 타나노파반 태국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준비하시는 참여머님의 깊은 정성과 심정을 증거했다. 식구들은 특별은사 성주식에 참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은사에 깊은 감사를 올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천력 2월 3일(양 3.2) 제1차 특별은사 성주식이 860명의 식구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가운데 실시됐다.

호리 마사이치 대륙회장은 성주식의 의미를 설명하며, 홀리마더한 참여머님을 중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구들은 새 출발 결의서를 봉헌하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시대를 맞아 순결하고 신앙적인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기필코 참부모님께 승리를 안겨드리겠다고 맹세했다. 



파키스탄, 300쌍 축복식 개최 종교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대 마련



① 케이크 커팅 ② 참가정 서약 및 성주식

파키스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관 300쌍 축복식이 천력 1월 30일(양 2.27) 편자브주 물탄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진행됐다.


6개월 간 교회지도자들과 식구들은 하나되어 정성과 신앙으로 준비한 결실로 이번 행사에 300쌍의 커플이 함께하게 되었다.

특별히 물탄 대주교구의 레오 로더릭 폴 주교가 아내와 함께 참석해, 축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축복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교구 내 교회에서 축복 워크숍과 행사를 통

해 이어갈 뜻을 밝히며 참부모님의 비전 확장에 협조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날 지역 교회 목회자 10명도 참석, 성주식에 참여함으로써 축복이 가정과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만찬과 간담회에서는 기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서로 관계를 더욱 돈독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에서 참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종교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③ 축복식 홍보 배너 앞 기념촬영 ④ 만찬을 이룬 축복식 참여자들


인도 시킴 천주평화연합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연설대회



① 여성의 날 기념 연설 ② 연설대회 수상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인도 시킴주(州) 천주평화연합(UPF)은 익파이(ICFAI) 시킴 대학교와 협력하여 3월 10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7개 대학에서 14명의 연설자를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성애: 세계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킴주 의회 부의장인 라즈 쿠마리 타파 의원을 비롯한 저명한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크리스나 아디카리 인도 UPF 사무총장은 모성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홀리마더한 참여머님의 비전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나누었다. 대회는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청년 리더십과 연민의 힘을 강조하며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신탐건 선교활동 1주년 기념 만찬

캄보디아 가정연합은 3월 9일 세계평화청년연합과 함께 신탐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청년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교사 토모카 호마는 참부모님의 사명에 대해 발표하며 전

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로는 소팔 캄보디아 협회장은 축복가정의 가치와 국제축복결혼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청년들이 미래 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선교사들의 진실한 사랑과 봉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전도된 새식구와 공동체가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었다. 




① 신탐건 선교활동 1주년 기념식 후 함께한 선교사들 ② 참로는 소팔 캄보디아 협회장이 신탐건 선교사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비전을 가진 청소년 프로젝트 브라질, 퓨어워터 21일 인성교육 세미나



① 퓨어워터 인성교육 세미나 전경 ② 인성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청년지도자들

브라질 가정연합 주관 퓨어워터 21일 인성교육 세미나가 천력 1월 5일부터 25일까지(양 2.2~22) 브라질 협회본부에서 ‘비전을 가진 청소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인간의 개성, 행복과 건강, 환경 보존, 평화 등을 주제로 10강좌가 구성돼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의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강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각 교육기관을 방문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미래세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알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사역에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2025 남미 웨비나 남미를 위한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



신남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2025 남미 웨비나’가 천력 1월 21일(양 2.18) ‘평화 세계를 위한 종교 간 협력 및 화합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라인 개최됐다.

시몽 페라볼리 UPF 의장은 환영사에서 종교 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교 화합을 위해서는 종교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종단 대표들이 함께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디어, 상호존중 문화 구축, 교육 등을 주제로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① 2025 남미 웨비나 포스터 ② 온라인으로 참여한 참석자들


페루 천주평화연합 2025 유엔 세계종교화합 주간 행사



① 종교지도자 합수식 ② 평화대사 임명장 수여식



신남미 3지구 페루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유엔 세계종교화합 주간 기념행사가 천력 2월 1일(양 2.28) 페루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유엔 세계종교화합 주간 기념식을 비롯해 신임 40명의 평화대사 임명식, 종교지도자들의 합수식이 진행됐다.

또한 헤수스 마누엘 메히아 키로스 주교, 아키노 오소리오 메사리나 가톨릭 사제, 오스카 호세 게레로 코르네호 몬시뇰 등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됐다. 

페루 아탈라야 지역 다문화 학술 총회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 종족대표 등 참여


페루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다문화 학술 총회가 2월 25일 각계 지도자와 지역 원주민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아탈라야 지역에서 개최됐다.

트레버 존스 박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평화대사들을 환영하고 이중언어교사,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 종족 대표, 환경운동가, 외교관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아탈라야 시장도 연설에서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이중언어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원주민 공동체에서 모국어 사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① 강의하고 있는 트레버 존스 페루 UPF 지부장 ② 아탈라야 원주민 평화대사 임명장 수여식



총회에서는 인권 및 환경문제,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의 어려움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고, 행사 기간 동안 하이메 페르난데스 투팍 UPF 페루 사무총장 주관하에 18명의 원주민 지도자가 평화대사로 임명됐다. 

브라질, 효정천보수련 참어머님의 섭리 및 놀라운 간증 소개



① 효정봉헌서 봉헌식 ② 합심기도하고 있는 브라질 식구들 ③ 성주식 ④ 찬양역사


천심원 신중남미 분원 주최 효정천보수련이 천력 2월 10일(양 3.9) 브라질협회 자르딘 수련원을 중심으로 브라질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사키 코이치 브라질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30대 조상 해원 및 축복 완료와 천보가정의 책임을 강조한 후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성남 천심원 분원장은 개회사에서 ‘홀리마더한’을 선포해주신 참어머님의 최근 섭리를 설명하고, 천심원

의 놀라운 간증들을 소개하면서 효정천보수련을 통해 영계의 역사를 체휼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후 효정봉헌서 봉헌과 찬양역사, 조상해원식 및 축복식이 진행됐다. 식구들은 천지인참부모님과 정렬된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인의 영적인 샅된 기운을 정리하는 회개와 새출발의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하늘부모님의 실체적 치리시대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승리를 위해 최고의 정성과 기도를 하늘 앞에 봉헌할 것”을 결의하며 수련은 성료됐다. 



브라질 협회본부 'Youth! Sing for Peace' 뮤직페스티벌



① 댄스 공연 ② '뉴 호프 가든' 밴드 ③ 공연을 즐기고 있는 청년들


브라질 'Youth! Sing for Peace' 뮤직페스티벌이 천력 2월 10일(양 3.9) 브라질 협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효진님 성화 17주기를 기념하며 평화 위해 아낌없이 쏟았던 효진님의 효정을 상속받고, 당시 세계 카프 청년들이 세계평화 활동에 나섰던 의지와 정열, 꿈과 정신을 지금의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젊은이들이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은 브라질의 '뉴 호프 가든' 밴드의 공연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참부모님의 청년을 중심한 섭리를 주제로 스피치가 진행돼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실천활동을 나누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카프 총회와 효진님의 특별영상 상영을 통해 평화 실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강조됐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통일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가사를 부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세계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음악 공연 및 스피치 외에도 설치된 다양한 부스에서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으며, 청년전도에 음악과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5 중남미 천일국 청년총회 참여머님과 일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①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상석 중남미 회장 ② 순결 및 축복 서약식 ③ 축하공연 ④ 코스타리카 청년총회 참석자들

2025 중남미 천일국 청년총회가 3월 16일, 중남미 각국에서 총 2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중남미 가정연합 청년국이 ‘평화를 위한 만남’을 주제로 2025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총회에는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20명이 현장 참석했고,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에서 107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총회에는 김상석 중남미 회장, 레오니다스 벨리아드 5지구장,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중남미 청년학생연합

(IAYSP) 회장이 함께해 성원을 보냈다.

이번 총회는 4월 13일에 거행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년들이 퓨어워터로서 Holy Mother Han 참여머님과 일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기주도성’, ‘진실되고 순수한 연결’,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미래세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효정의 자녀가 될 것을 결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짐바브웨, 퓨어워터 웨이브 천일국 청년 총회 순결, 기도, 자신의 사명 위한 다양한 토론 전개



① 원리 교육 ② 천심원 철야정성 ③ 전체 참석자 기념촬영

신아프리카 짐바브웨 가정연합 주최 ‘아프리카 퓨어워터 천일국 청년 총회’가 천력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양 2.21~23) 짐바브웨 하라레 평화대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2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강의, 혼독회를 비롯해 지역가족봉사 가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아프리카 미래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 청년들은 순결, 기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주제로 토론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프리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

신아프리카 대륙회장 주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이 천력 2월 17일(양 3.16) 신아프리카 전역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하늘부모님 아래 한 가족’ 이념 아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주식에 임했다.

참석 식구들은 이번 성주식을 통해 독생녀 실체성령 참여머님께서 축복가정과 퓨어워터를 세워주시고 끝없는 사랑

을 베푸심을 체휼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렸드렸고, 신앙의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① 성주식을 하고 있는 식구들
② 아프리카 주관 성주식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430가정 축복 57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알현
천일국 13년 천리 2월 2일 (2025. 3. 1) 천정궁

“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세계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자녀가 되자!

”